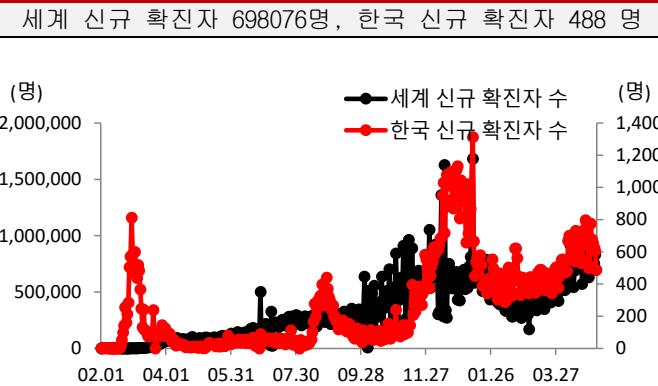


코로나19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

SK증권 리서치센터

2021년 5월 4일 화요일

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일간 증가 추이



출처: WHO

코로나19 확진자/사망자/완치자

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만명 아래 기록해 감소 추세

2021-05-04 8:11 갱신

	세계	한국	중국	미국	인도	브라질	기타
확진자수	153,796,879	123,728	90,697	33,181,941	20,010,677	14,754,910	118,816,867
(전일대비)	698,076	488	11	34,285	90,962	28,935	9,337
사망자수	3,220,984	1,834	4,636	591,071	219,436	407,775	2,587,303
(전일대비)	9,337	1	-	93	3,433	1,210	4,693
완치자수	131,803,692	113,356	85,733	25,823,839	16,358,238	13,278,718	101,967,647
(전일대비)	776,753	491	15	45,912	312,043	36,053	428,151
의심환자							

후베이*는 중국 통계에 포함됨.

출처: WHO, Wuhanvirus.kr / WHO 발표 기준. 언론 보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

매크로 및 금융시장 Insight

해외

● 인도 하루 확진 40만명…과학자들 “50배 더 많을 수도”

- 설상가상으로 실제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천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

- 인도 정부의 자문 과학자팀의 리더인 엠(M). 비디아사가르는 “무증상 감염자가 많아, 실제 감염자 수는 (통계치보다) 50배 더 많을 수 있다”며 “신규 확진자 수는 오는 3~5일께 정점에 도달할 것”이라고 전망

● 멕시코서도 인도발 변이 첫 확인…“미국 방문자 접촉 후 감염”

- 이날 중부 산루이스포토시주(州) 보건당국은 지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1명이 ‘인도 변이’로 불리는 ‘B.1.617’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

- 멕시코엔 지금까지 235만 명가량의 누적 확진자와 21만7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음

● 일상 복귀 기지개 켜는 유럽…피사의 사탑 재개장

-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자 유럽 각국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

-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관광업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

국내

● 코로나19 백신개발 美모더나, 한국 자회사 설립 수순

- 2일 모더나는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고자 임원급 인사인 제너럴 매니저(General Manager, GM)를 채용한다고 밝힘
- 이에 앞서 모더나는 지난달 15일 두 번째 백신데이에서 한국과, 일본, 호주 등에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

● 현금 쓸어담던 공기업들, 코로나 한방에 무더기 적자

-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'알리오'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11곳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적자 전환.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국내 최대 카지노 기업인 강원랜드
- 적자폭이 종전보다 확대된 곳도 4곳에 달했다.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당기순손실이 2019년 1548억원에서 지난해 2조4392억원으로 커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짐

● IMF “한국, 코로나19 대응 성공적…G20 중 역성장 최소화”

- IMF는 한국 정부가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(기초체력)과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
- 다만 “한국 정부가 정부부채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에 접어든 것을 고려하면, 확장적 정책은 향후 점차 축소될 수 있다”고 덧붙임

산업/기업 Insight

해외

● 영국, 청소년 화이자 백신 가을 접종 검토

- 영국이 12세 이상 학생들에게 가을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히는 방안을 검토 중
- 청소년 접종은 앞으로 몇 달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

● 코로나19, 동남아 헬스케어 디지털 경제 수용 가속화

- 동남아, 디지털 헬스케어 인재 확보를 위한 재교육 및 이민 정책을 마련하고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하고자 노력
- 화상 디지털 진료 및 약 배달 서비스 등 감염 가능성 감소와 의료진 효율적 운용 기회 제공 박차

● 캐터필러, 북미 시장 회복세… “실적 호조 지속될 것”

- 캐터필러는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119억달러, 영업이익 18억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.8%, 29.2% 상승
- 사업부문별로는 건설기계는 5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% 성장, 에너지·운송 45억달러(4%), 자원개발(6%) 부문도 개선
-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경기회복과 교외지역 주택수요 증가 등에 따라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음

국내

● 한국유나이티드제약 “코로나19 치료제,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 확인”

- 남아공 등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추가 실험 지속
- 이달 중 식약처에 임상2상 IND 신청 예정

● 경남제약-블루베리NFT, ‘듀얼 항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’ 개발 및 특허 출원 완료

- 경남제약과 블루베리NFT, 신종 및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속한 진단이 가능한 고민감 광학 기반 면역 진단 플랫폼인 ‘코로나 19 바이러스 항체 검출용 비색-형광 면역 진단 센서’ 특허기술의 공동출원 완료

● 제주항공 대표 “단거리 노선에 집중…대형기 도입할 때 아냐”

- 저비용항공사(LCC)들이 중대형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과 관련해 제주항공의 입장장을 설명
- “LCC 사업모델은 단일 기종으로 단거리 노선에 집중해 효율성과 저비용을 극대화하는 것”이라며 “기종 다양화에 따른 초기 투자와 ‘complexity cost’(복잡화로 인한 비용) 등을 극복할 수 있을 역량을 확보한 후에야 대형기 도입을 고민할 수 있다” 언급